새로운 서울시민참여 정책 모습은?

단체지원 개선·예산 투명성 강화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서 의견 수렴
단체활동자금 집행개선 공감수 1위
일각선 "속 보이는 설문" 비판

서울시가 진일보한 시민참여 정책을 선보이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3일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새로운 서울시민참여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 오후 2시까지 총 173명이 의견을 냈다.

그간 시는 서울시정에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다양한 계층의 시민 1000명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숙의·공론하고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공론장 '서울시민회의' ▲시민이 예산사업을 발굴·제안·심사하는 '시민참여예산'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시민참여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는 "'참여사업의 성과가 뭔지 잘 모르겠다', '관행적인 예산 배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등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참여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론 수렴 배경을 설명했다.

시가 새로운 서울시의 시민참여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세금이 시민단체로 들어가 특정 단체의 활동자금으로 쓰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공감수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투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는 B씨의 제안도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 시민참여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정책 과정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위탁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터놓고 사업의 성과와 내용, 평가를 모두 공개해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라", "투명하게 예산을 공개하고, 집행한 예산이 남으면 관례적으로 0원이 될 때까지 잡비로 소비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투명한 재정관리를 선행,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나 적극적으로 시민참여 정책에 함께할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가 새로운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도 존재했다. 공모 씨는 "무엇보다 서울시장이라는 국가에서 손에 꼽는 권력자가 이런 속이 뻔히 보이는 설문조사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갈했다.

오모 씨는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활동을 '돈 먹는 하마'라고 탓하고 축소하려는 태도에 반대한다.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며 "똑똑한 제갈량보다 갖바치 10명이 더 낫다. 우리의 서울이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라이트브라더스,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버려진 자전거에 새 생명을"

일반 중고 자전거보다 가격 저렴
택배 배송 미지원… 직접 수령

서울시가 민간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라이트브라더스와 함께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재생자전거'에 대한 온라인 시범판매를 이달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들은 라이트브라더스 홈페이지에서 재생자전거를 일반 중고 자전거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재생자전거 수요가 늘면 방치된 자전거 수거가 더 활성화돼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면서 "지역자활센터 수입 증가로 노숙인 등 자활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범 판매는 2개 지역자활센터(광진구·영등포구)에서 생산한 재생자전거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택배 배송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결제 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전거포 등에 방문해 직접 재생자전거를 수령해야 한다.

시는 이달 초 베타서비스 형태로 재생자전거를 소량 판매하고, 플랫폼 개편을 거쳐 내달 중 재생자전거 전용관을 조성해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전 등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우리동네 자전거포. /서울시

재생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원 재활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라이트브라더스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다가 방치된 자전거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재생자전거"라며 "시민들의 재생자전거 구매는 자원재활용을 통한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것뿐 아니라 자활근로자들의 성과금 지급이나 자활기금 조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생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재택치료자 이송 인프라 보강

전담구급대 20개대→30개대 확대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 90명 충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의 이송체계 보강을 위해 전담구급대를 20개대에서 30개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전담구급대 확대 운영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응급이송 인프라를 확충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본부는 설명했다.

서울소방 코로나19 전담구급대는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확진환자 응급처치·이송 등을 도맡으며 방역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서울소방 구급대가 지난해 병원으로 이송한 코로나19 관련 환자는 총 4만 8000여명으로 전년 2만 7000여명 대비 2만명 넘게 증가했다.

이번에 충원되는 인력은 90명으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60명과 구급차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 자격을 소지한 30명이다.

인력과 함께 투입되는 구급차는 예비차량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보강되는 전담구급대 10개대는 서울시내 10개 소방서에 배치돼 3조 2교대 방식으로 이달 5일부터 24시간 운영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모집

436명 모집, 24일~26일 원서 접수

서울시는 관내 공원 녹지대와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43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채용 공고를 내고, 24~26일 원서를 접수한다.

시는 현장 체력심사와 공개 추첨,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 기간에 집 근처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체력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현장 체력 심사가 면제된다. 체력인증센터는 서울 마포, 서대문, 동작, 중구, 송파, 서초, 강북, 성동 총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개인 시간에 맞춰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등급을 높이고 싶은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 발간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역사 전달
일제말기, 6·25전쟁 당시 상황 담아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시 초창기 공무원들의 활약상을 구술로 풀어낸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사진)'을 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시민들에게 현대 서울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구술채록사업을 진행,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시리즈을 발간했다.

이번에 펴낸 제13권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에서는 서울시 출범 초기 활동했던 공무원들의 구술을 채록·정리했다고 역사편찬원은 설명했다.

'서울의 재건과 시정, 그 현장의 사람들'은 일제말기와 광복 직후, 6·25전쟁과 전후 복구시기 서울시의 현장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의 구술을 엮은 책이다. 서슬 푸른 일제 말기 서울, 광복 직후 혼란 속 서울,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점령당했을 때 이들이 겪고 목격했던 전쟁의 참상,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 서울의 현장을 뛰어다녔던 공무원들의 활약상과 증언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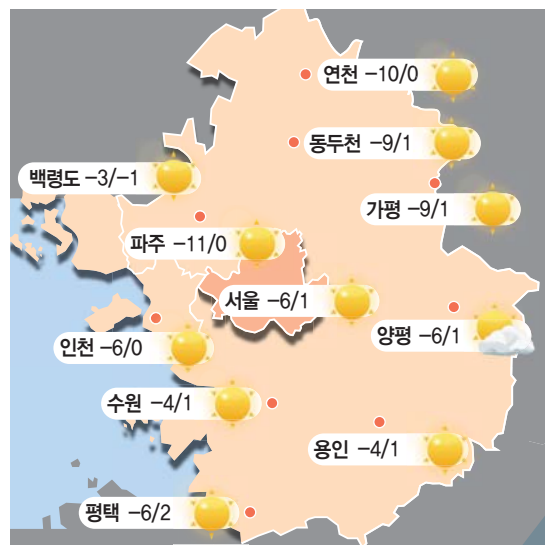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47 | 해짐 / 17:27

1월 **4일** (火)
음력 : 12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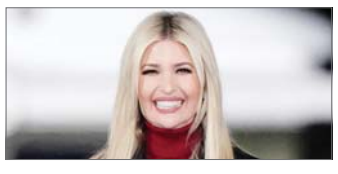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6 ~ 1℃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3차 접종 완료시 미접종보다 중증 위험 93.6% 낮아
▲"이방카, 트럼프에 '의회 폭동' 막아달라 직접 요청" /사진 뉴시스

▲ '무증상자도 볼일은 본다' 미국, 하수로 코로나 확산세 파악
▲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 모건스탠리, 715억원 지급 합의

▲ 네덜란드 차기 정부 장관직 절반이 여성…역대 최다
▲ 이스라엘서 코로나+독감 감염 '플루로나' 사례 첫 확인 /사진 뉴시스